

한국 영화 빙하기 맞나...대작들 개봉 '눈치 싸움' 계속

'영웅'·'한산'·'외계+인' 등 감감무소식...당분간 외화에 안방 내줄 듯 영화계 "영화산업 생존 위해 정부 개봉 지원·영업시간 제한 폐지"

극장가가 코로나19 확산세로 최대 대목인 설 연휴에도 별다른 재미를 보지 못한 가운데, 국내 대작 영화들이 개봉 일정을 좀처럼 잡지 못하고 눈치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반면 외화에서는 블록버스터들이 잇따라 개봉을 예고해 당분간 한국 영화가 '빙하기'가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배급사 및 극장은 전례 없는 위기에 처한 영화계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작 한국 영화 개봉이 절실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의 개봉 지원과 극장 영업시간 제한 폐지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3월 대작 한국영화 개봉 없어...할리우드 블록버스터는 줄줄이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1월 29일~2월 2일) 극장을 찾은 관객은 총 136만4천여 명에 머물렀다. 직전 명절인 지난해 9월 추석 연휴 관객 수(154만8000여명)보다 약 18만 명 적다.

설 특수가 기대된 코미디 어드벤처물 '해적: 도깨비깃발'과 정치 드라마 '킹메이커'는 각각 약 64만 9000여명, 35만7000여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박스오피스 1·2위에 오른 두 작품을 합쳐 간신히 관객 수 100만명을 넘겼다.

오랜만에 나온 국산 대작 영화들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다소 아쉬운 성적이다. 개봉 2주 차가 되면서 실시간 예매율이 떨어진 상태로 향후 관객의 급격한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문제는 1분기가 끝나는 다음 달까지도 이렇다 할 신작 한국 영화가 개봉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는 점이다.

특히 유명 감독과 배우, 70억원 이상의 제작비를 투입한 텐트폴(흥행이 확실한 상업 영화)이 없어 한국 영화가 '보릿고개'를 맞을 것으로 추측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영웅'(윤재근 감독), '한산: 용의 출현'(김한민), '외계+인'(최동훈), '보스톤 1947'(강제규), '더 문'(김용화), '필수'(류승완) 등 촬영을 마치고 크랭크업을 한 이른바 '천만 감독' 영화 배급사들은 개봉일을 확정 짓지 못하고 있다.

'비상선언', '공조2: 인터내셔날', '승부', '교섭', '범죄도시2', '보고타', '마녀' 등 다른 기대작들도 같은 처지다.

반면 외화에서는 DC 히어로물 '더 배트맨'을 비롯해 톰 홀랜드 주연의 '언차티드', 재난 영화 '문풀', 소니 스파이더맨 유니버스의 안티 히어로 영화 '모비우스'까지 블록버스터들이 대거 국내 극장을 찾는다.

뮤지컬 영화 '시라노', 애저사 크리스티 베스트셀러를 원작으로 한 '나일강의 죽음', 기에르모 토로 감독 신작 '나이트메어 엘리', 샌드라 블록 주연의 어드벤처물 '로스트 시티' 등도 북빙으로 꼽힌다.

2~3월 최소 두 달간은 외화가 한국 극장가를 점령할 것이라는 예상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좋은 콘텐츠 나오면 극장에서 본다...정부 지원 절실"

영화계는 유례없는 침체에 빠진 영화 산업과 극장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작 한국 영화의 개봉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극장에 관객의 발길이 이어지려면 외화보다 관객



'외계+인'



'비상선언'

층이 다양한 한국 영화가 걸려야 하고, 그중에서도 극장에서 봐야만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블록버스터가 꼭 필요하다라는 주장이다. 중소형 영화들도 대작

개봉에 따른 '낙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전했다.

한 멀티플렉스 관계자는 "700만 관객을 넘긴 '스

파이더맨: 노 웨이 홈' 사례를 보면, 관객이 꼭 보고 싶은 영화는 팬데믹 상황에서도 관람한다는 걸 알 수 있다"며 "좋은 한국 콘텐츠가 나오면 관객이 극장을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작들이 여름 성수기를 노리고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경우, 일부 작품은 흥행에 참패할 수 있다며 지금부터 조금씩 개봉을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영화계 관계자는 "개봉 대기 중인 대작만 30편에 이르는데, 이들이 여름에 몰려오면 몇 편은 피를 볼 수 있다"면서 "개봉 예고만 하고 막상 나오지는 않아 '구작' 이미지가 강한 작품이 많기 때문에 빨리 개봉하지 않으면 신선함이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관객이 급감한 상황에서 막대한 자본을 투입한 영화 개봉 시점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제작년 2월 코로나19 확산 이후 개봉한 한국 영화에서 관객 수 300만명을 넘긴 작품은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386만여명), '반도'(330만여명), '모가디슈'(345만여명) 단 3편에 불과하다.

이런 가운데 무작정 개봉했다간 자칫 손익분기점도 넘지 못하고 단기간에 작품을 내려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멀티플렉스 3사인 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속한 한국상영관계회는 지난해 '모가디슈'와 '싱크홀' 제작비 절반을 지원해 개봉을 끌어냈으나 올해는 이 역시 녹록지 않다는 입장이다.

팬데믹 3년 차에 접어들면서 기존 극장이 문을 닫을 만큼 자금 사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 다른 멀티플렉스 관계자는 "이제는 정부가 한국 영화 개봉 지원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한국 영화산업의 생존과 K-콘텐츠의 지속적인 성장을 바란다면 실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수지, 4년만에 가수 컴백...17일 싱글 발표

가수 겸 배우로 활동 중인 수지(본명 배수지·사진)가 약 4년 만에 신곡을 선보인다.

소속사 매니지먼트숲은 "수지가 오는 17일 오후 6시 음원사이트를 통해 디지털 싱글 '새틀라이트'(Satellite)를 발매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싱글은 2018년 미니 2집 '페이스스 오브 러브'(Faces of Love)에 이은 신보로, 수지가 그동안 불러온 노래와 다른 분위기의 곡이다.

작사에 참여한 수지는 달을 수 없는 존재에 대한 그리움을 토로하면서 언제나 곁을 맴돌며 그 자리에 있겠다는 마음을 가사로 풀어냈다고 소속사는 전했다. 소속사 관계자는 "오랜 기간 작업하며 완성한 곡으로, 보컬리스트로서의 면모를 느낄 수 있는 노래"라며 "한동안 수지가 배우로서 작품 활동에 집중해온 만큼 팬들의 관심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0년 걸그룹 미쓰에이로 데뷔한 수지는 2011년 KBS 2TV 드라마 '드림하이'로 연기에 입문했으며 이후 여러 드라마, 영화에 출연하며 연기와 가수 활동을 병행했다.



/연합뉴스

MBC 일일드라마 '비밀의 집' 봄 첫선

서하준·이영은 주연

MBC는 현재 방영 중인 일일드라마 '두 번째 남편' 후속작으로 '비밀의 집' 편성을 확정하고 올봄에 첫선을 보인다고 10일 밝혔다.

'비밀의 집'은 사라진 엄마의 흔적을 쫓는 '휴수저' 변호사가 세상과 맞서 싸우기 위해 자신을 둘러싼 비밀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치밀한 복수극이다.

배우 서하준이 휴수저 출신 변호사 우지환을 연기하며, 배우 이영은이 우지환의 첫사랑이자 배우 따듯한 심성을 지닌 외과의사 박주영으로 등장한다.

'위험한 여자', '폭풍의 여자', '하얀 거짓말' 등을 연출한 이만수 감독과 '내사랑 차유기', '다시 시작해', '모두 다 김치' 등을 집필한 원영욱 작가가 의기투합해 비뚤어진 가족애에 맞서 정의와 진실을 추격하는 남자의 여정을 그린다.



서하준



이영은

NRG 이성진 "저 장가 갑니다" 손편지

그들 NRG의 이성진(사진)이 결혼한다.

이성진은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직접 쓴 손편지를 올려 "저 장가 갑니다"라고 밝혔다.

이성진은 NRG 팬클럽인 '천재일우'에 가장 먼저 소식을 알리고 싶었다며 "제 모자란 부분을 옆에서 묵묵히 챙겨주고 절 누구보다 아껴주는 사람이기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썼다.

이어 "오랜 시간 못하고 모자랐던 저를 항상 응원해주는 여러분들 또한 제 가족이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많은 축하와 행복을 기원해달라"고 밝혔다.

1996년 그룹 하모모모로 연예계에 데뷔한 이성진은 이듬해 5인조 그룹 NRG로 다시 데뷔해 '할 수 있어', '티파니에서 아침을', '대한건어만세' 등의 곡으로 인기를 얻었다.

올해 45살인 그는 지난해 11월 한 방송에서 "3년째 좋은 인연으로 지내고 있는 분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꽃게랑 약선반찬 전집
광주 북구 운암1동 황계로 27-1
간장게장, 양념게장, 모듬전, 김치류전 등
제사음식, 반찬메뉴, 흥어무침, 추어탕
오리탕, 나물종류 등 사전예약 가능
☎ 010-2315-2058

금남로 사주 카페
금남로 4가 50번지(원각사 바로 옆)
궁합, 신수, 작명, 운수 판단
☎ 010-7495-1577

성수동골짜기배기나주영산포점
전남 나주시 예향로3778, 영산포5일시장 건너편
골짜기2개 1000원, 옛날햇도그1개 1000원
치즈햇도그1개 1500원, 찰떡도너스2개 1000원
팔도너스1개 1000원, 흑임자도너스1개 1000원
☎ 061)337-7987, 010-7732-6955

면쟁이
동구 산수동 518-14, 광주은행 산수동지점 건너편 위
다양한 각종 면요리와 생과일주스
75세이상 어르신과 금식카드 고객 50%할인판매
우동모밀, 죽 등 다양한 면요리 전문점
☎ 010-5459-9664

법무사 황영수 사무소
광주시 동구 자산로78번길 13, 검찰청담벼락빌
소송, 민사집행, 민사신청, 공탁, 가사, 부동산등기
상업등기 각종 법률무료상담
☎ 062)226-9966, 010-3002-0816

문화결혼상담소
북구 북동 242-4번지
초혼·재혼 상담
작명, 궁합, 풍수지리
☎ 062)529-0315, 010-3606-5632

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식당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함.
☎ 062)224-7687, 010-2611-7687

필스제화
동구 산수동 553-73(산수5거리 옛골다리쪽)
구두수선·남화·여화창 굽같이
가방지퍼수선·염색·광택
☎ 010-4755-9294

인철(仁喆)익스프레스
북구 신안동 764-10번지
포장·일반이사, 화물운송
"저층에서 고층사다리 보유"
☎ 062)572-2323, 010-9509-4422

무크 광주세정점
광주시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1층 151호
심플하고 옛지있는 스타일의 기술신상품 출시
남·여화 20~40% 세일
(일부 품목은 제외)
☎ 062)370-9151

작곡가김기범노래교실
광주 동구 계림동 331-4
(계림동로터리 옛 계림오거리입구 3층)
전자올케으로 직접 연주, 개인지도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 방문 완비
☎ 062-225-4445, 010-3603-3064

초대화랑
동구 공동54-2번지(예술의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 062)222-2516

고전방
동구 공동 34-4(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 062)224-4869

남도철학원
북구 전변우로79번길 87(임동)
수강생수시모집! 사주, 작명, 출생, 택일
명리비전으로 수강생 개인지도
☎ 062)522-9653, 010-8645-2254

신신예술의집
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 062)222-1936

다흥치마 한정식 전문
광주시 북구 독립로 251
한정식, 고동어구이, 주물럭, 생뽕, 갈치구이
☎ 062)233-9952, 010-4469-0360

한국기원
광주 북구 운암동 450-17
(운암시장 앞 한국회관 3층)
바둑 원장개인지도,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
넓고 깨끗한 환경
☎ 010-8610-8373

박당화랑
동구 공동 51-18번지(예술의거리)
한국화, 서양화매매 및 감정
대표 박한승 ☎ 062)222-6866